

자동차보험, 영업소장인 김(仙)씨(34)는 같은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양자로 입양한 딸과 두 자녀의 양육이 어려울것같아 3년전 보험영업을 시작했다.

부부가 보험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영업소개설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영업소가 실전위주로 배당을 받고 실적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폐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기때문에 긴장속에 일하고 있다.

본사 업무부서에 근무하던 남편까지 영업소로 전보냈는데 영업소에 파견 근무도를 형사상 발령을내고 사실은 남편까지 실직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회사가 인사조치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안게됐다.

그러나 김씨는 친지와 화교동창, 자동차판매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입수한 자동차구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남편이 외근이로 계약을 마치고나서 등 부지런히 노력해 약올려 보험



〈5〉

내집 갖게되면 일단 만족

주부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돈을 쏘는 직장일과 너들의 등하고 뒷바라지 성사되면 남편에게 넘기

직업일을 병행하는게 쉽지 않아 아침과 저녁으로 자를 하면서 집에서 전화로 만나 어렵사리

능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중원회사에 근무하는崔



모씨(29)는 퇴직때 목돈을 빌수 있었지만 기대로 지난 89년 사내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매입대금은 5년간 월급에서 공제키로 하고 빠듯한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갈 작정이었으나 그후 주식값이 폭락해 돈을 날린것은 고사하고 지금이라도 퇴직하면서 주식을 양도하면 퇴직금을 모두 불입해도 빚을 걸머질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게됐고 결혼후 여태껏 방두칸짜리 전세방에 살고있다.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생각이지만 한번도 타하지않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財産늘리기 한계...증권 땅투자 엄두못내

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대부분은 경제사정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재산증식이 쉽지않다.

아내가 피아노교습을 한 덕분에 결혼8년만에 서울 시내에서 32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할수 있었다는 차承鎮씨(38·회사원)는 맞벌이가 집마련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녀석하게 산다고 할 정도로 재산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것같다고 말한다.

재산증식은 사업또는 장사를 하거나 증권투자로 자등재테크를 통한편이 빠르지만 평범한 맞벌이로서는 이런 재산증식방법이 너무 위험하다는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다지 차씨의 경우처럼 남보다 좀더 빨리 집을 마련하고 조금더 여유있게 생활할수 있다는 점이 맞벌이부부의 재산증식태도인 것이다.